

지식 기반 경제와 디지털 경제

2000년에 들어서 ‘디지털 폭풍’이 우리 경제 사회에 몰아치고 있다. 지난 해에는 지식 경제 열풍이 불더니 올해는 디지털 경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 현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너무 ‘언어 유희’에 몰입해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더욱이 정책 담당 부서들이 신문 지상에 유행하는 경제적 수식어들을 대상으로 명확한 개념 규정없이 수시로 정책 입안 작업을 하는 것은, 정부 정책 추진의 또 다른 비효율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비슷한 개념들을 대상으로 정책 과제들이 빈번히 제시된다면 기업이나 국민들 역시 의사 결정에 커다란 혼란을 겪게 된다.

지금의 디지털 경제 붐이 우리 경제에 보다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이의 개념을 분명히 하여 정부 정책 추진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여야 한다. 우선 지식 기반 경제와 디지털 경제는 다른 경제 현상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지식 기반 경제가 지식의 축적, 공유, 창조에 기반을 둔 경제라고 한다면 이는 디지털 기술 혁명에 의해 가능해진 것이다. 다시 말해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의해 정보와 지식의 대량 축적과 광범위하고 신속한 공유와 활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지식 기반 경제가 성립하게 된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경제는 지식 기반 경제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식 기반 경제는 기술적 기반이 갖추어진다고 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못지 않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치, 사회, 문화적 풍토가 중요하다. 디지털 경제는 지식 기반 경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일 뿐이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화를 지식 기반 경제화의 또 다른 별칭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 인식 및 정책 추진상의 혼란을 초래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요즈음 시도되는 디지털 경제 정책은 ‘지식 기반 경제화를 위한 경제의 디지털화 정책’으로 해야 개념상의 혼란을 막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화 정책도 너무 한 곳으로만 치운친 감이 있다. 디지털화가 우리 경제의 발전에 주는 단기, 중장기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 혁신이 우리 경제에 미

칠 영향으로 우선적으로 감안해야 할 점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기존 사회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시장·산업의 등장이며, 세 번째는 디지털 불평등 심화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장과 산업에만 관심이 치우쳐 있다. 벤처 기업 열풍이나 정보 통신 산업과 같은 미래 유망 산업 중심으로 주가 상승세가 형성되는 것들이 대표적 사례이다. 미래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 경제의 성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고 그만큼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신사업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과 산업의 디지털화를 통해 이들 부문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제조업 부문의 정보 인프라 확충 그리고 전자 상거래와의 결합 방안과 같은 전통 산업 부문의 디지털화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디지털화를 통해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제조업 수요가 풍부한 동북아 경제권에서 한국의 경제적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 지역간, 계층간 디지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직장 내 직업 교육이나 노인 학교 등을 통해 중노년층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저소득 계층이나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수도권 중심의 디지털화도 시정해야 한다.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디지털화가 우리 경제 성장에 주는 시사점은 경제 활동의 ‘광속화’와 ‘사이버화’ 현상이다. 이와 관련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금융 거래 및 감독 시스템의 선진화(국제적 자본 거래의 자유화에 따른 외자 유출입의 단기화와 빈번함에 대한 대응), 조세원 포착 문제(조세 대상, 조세 포착 시점, 유형 자산 기준 또는 무형 자산 기준과 같은 과세 기준), 공정 거래 정책의 대상 산업 문제(산업 분류, 규모 산정, 독과점의 기준)이다.

디지털 경제화는 지식 기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구체적인 전략이다. 그리고 성공적인 디지털 경제화는 결국 정보 인프라의 구축과 새로운 기술 및 경제 현상에 대한 사회 전반의 교육 강화를 통해 실현된다.